

■ 2025년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후보) 연극분야 지원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5년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후보) 연극분야
- 회의일시 및 회의장소
 - (1차) 2024년 12월 3일(화) 14:00~18:00 / 예술가의집 영상회의실
 - (2차) 2024년 12월 14일(토) ~ 15일(일), 양일 간 / 대학로예술극장 중연습실
-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구태환, 김은성, 양근애, 정범철, 황운기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은 예술의 동시대성과 수월성, 실험성을 지향하는 우수한 신작을 발굴하기 위한 사업으로 독창성과 다양성을 갖춘 공연예술 창작작품이 발표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연극분야에서는 2025년 공모 사업에 총 88건이 신청하였으며, 3차 실연심의 대상인 올해의신작(후보)로 총 11건을 선정하였습니다.

올해의신작 연극분야의 심의는 1차 서류 심의, 2차 인터뷰 심의로 진행되었습니다. 1차 심의는 지원신청서류에 대한 전수검토로 이루어졌으며 2차 심의는 1차 심의를 통해 결정된 대상 단체를 인터뷰하여 작품의 계획과 기획 의도, 제작 가능성 등을 타진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심의 기준은 작품성(50%), 사업계획의 타당성(40%), 기대효과(10%)로 작품의 참신성, 창작 의도의 명확성, 작품 구성안과 연출의 예술적 수준을 묻는 작품성 항목의 비중치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이는 우수한 신작을 발굴하기 위한 사업 취지에 준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원 단체의 역량과 제작 계획, 예산 편성, 유통 및 확산 계획에 관한 부분도 공연 제작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기준 역시 꼼꼼하게 적용하여 심의에 임했습니다. 또한 심의위원 중 심의 대상사업의 구성원들과 과거 작업 이력이나 개인적 친분 등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위원은 해당 작품의 심의에서 엄격하게 회피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신청사업 중에는 한국의 근현대사를 다룬 작품과 고전을 재해석한 작품들이 꽤 많았습니다. 역사의식을 가지고 새로운 작품을 발굴하고자 하는 의지가 돋보이는 작품도 많았으나, 동시대 관객의 현실과 과거를 마주 세우는 방식에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심의위원회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SF 혹은 과학적 상상력을 통해 미래를 그려내고 비인간에 주목하는 작품도 예년에 비해 고른 수준을 보였습니다. 또한 여성, 퀴어, 장애, 노년 등 소수자성에 착목한 작품들이 동시대 담론과 조우하는 방식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를 재현하거나 캐릭터로 다룬 작품이 여럿 있었음에도 일부 작품의 경우에는 접근성과 연계되지 않아 아쉬운 지점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연극이 비교적 적극적으로 다루지 않았던 주제를 가져오는 경우, 공연 관람 문화와의 연관성을 더욱 세심하게 살펴봐주시기를 바라봅니다. 그 밖에 인간의 욕망과 기억, 폭력에 관한 연극의 오랜 고민을 새롭게 돌파하려는 작품 등, 다채로운 주제와 소재를 다룬 작품들이 많았습니다.

올해의신작에 신청된 작품들을 통해 지금, 여기 한국 연극의 고민과 가능성을 함께 고민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다채로운 주제만큼 주제나 소재를 다루는 방식도 다양했지만 그것이 연극으로 구현되었을 때 관객에게 얼마나 의미 있는 질문을 던져줄 수 있는지 세밀하게 토론하였습니다. 특히 연극 구성에 있어서 실험적 시도를 계획한 작품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는 연극적 재현의 달라진 의미를 관객과 함께 재구성하고자 하는 도전적인 시도로 앞으로의 발전이 기대됩니다. 다만 지원신청서에 연출안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 대본만으로는 무대화의 전략을 파악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었습니다. 더불어 일부 단체에서 참여 예술가 사례비 편성이나 무대 제작 산출 근거가 적절치 않은 등 본 공연 예산을 합리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심의 기준에 준하여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지원 작품들은 공히 혼란스러운 사회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함께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연극적 고투를 담고 있습니다. 올해도 다양한 고민을 던져주신 지원 단체들에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연극을 연극의 일만으로 환원하지 않는 연극인들이 있어 도래할 미래가 두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선정된 작품에 축하의 인사를 전하며, 3차 실연 심의에서 작품의 잠재성을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작품들 역시 다음을 기약할 수 있도록 뜨거운 격려와 응원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심의위원 일동